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18일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와 공동으로 서울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규태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간사가 ‘민간투자사업 기존 현황과 재구조화’에 대하여, 그리고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의 재구조화 방침 및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서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쟁점’을 지적하였고,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앞으로 누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까’라는 연구 답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 정책 의의’를, 양동완 SOC포럼 회장이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SOC산업의 사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기존 민간투자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활발한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올 하반기 건설 및 주택 경기 전망 발표

연구원은 지난달 10일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전망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2020년에 11.0~11.5%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하여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하락 속도가 좀 더 완만해져 2025년에는 건설투자 비중이 10.0~10.5%, 2030년에는 9.2~9.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불어 국내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20년 동안은 0.8~1.5%, 2020~2030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낮은 0.6~0.7%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과정 개설

연구원에서는 올 9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3일 간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부서 및 금융기관 담당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사업 제안서 작성, 협상 실무/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이다. 연구원은 이번 교육 과정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자의 회계 및 세무 관리 실무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논현동 건설회관 9층에서 진행되며 교육비는 45만원이나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인 경우 일부가 환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를 참조하면 된다. CERIK